

주간 규제 정보

Vol. 332

2021. 02. 01 ~ 2021. 02. 07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
- 2. 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4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 4. 중국, 2021년 1월 1일부터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6
- 5. 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7
- 6. 캐나다, GHS 7차 개정에 따른 유해제품규정 개정 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7. 영국 전기자전거 시장동향 1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에 총 124억원 투자 -

- ① 자율차, 스마트제조 분야 산업데이터 교환·활용 표준 개발
- ② 자율차 실증단지 간 연계, 스마트제조 구성요소 간 연계를 위한 실증체계 구축
- ③ 산업데이터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산업데이터 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 R&D 사업을 '21년 2월 3일(수)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은 데이터의 가공 및 서로 다른 데이터 간 교환·결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해도 표준에 부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데이터 활용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재가공하는 것이 비용·시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활용에 한계
'21년부터 '24년까지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①표준 개발 및 ②실증체계 구축과, 산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③성과확산 연구로 구성되어 총 3개 과제에 124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주행 안전성 제고 및 데이터를 활용한 新 서비스 창출을 위해 1)차량-차량, 2)차량-인프라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49억원이 투입된다.

- 1) 자율주행차 추돌방지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차량-차량 간 좌표·속도 등의 데이터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 공통요구사항 등의 표준과 실증이 필요
- 2) 위험구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위치데이터와 해당 현장의 위치·영역·시간 등의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전송·연계방식 등의 표준과 실증이 필요

서울, 대구 등 전국 4개 자율차 실증단지* 간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지역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21년 KS 2종 개발),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4개 이상의 실증단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적용하여, 자율주행 S/W, 데이터 서비스 등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를 검증**한다.

* 현재 서울시, 대구시, 세종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구축·운영 중

** 한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S/W의 안전성,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 등을 다른 실증단지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없는 '지역 간 자율주행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목표

또한, 기존 R&D과제와의 연계, 유관부처·기업과의 협업 및 '20년에 출범한 '자율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활용해 자율차 분야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불어, 스마트제조 기업 보급·확산을 위한 산업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표준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제조 구현은 1)센서 간, 2)센서-기업업무시스템(솔루션) 간, 3)솔루션 간 산

업데이터의 신속·원활한 교환이 필수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21년 KS 2종 개발), 개발된 표준의 효과를 솔루션이 설치된 실제 제조라인에서 검증한다.

- 1) 제조라인에서의 시간·공정별 온도, 압력, 전압 등 센서들이 수집한 다양한 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라인 위치별 공정변수 조정 등 공정 개선에 활용
- 2) 센서가 수집한 산업데이터를 솔루션에 실시간으로 축적·활용하여 생산계획, 입고관리, 설비정비 등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
- 3) 데이터 교환 용이성 제고를 통해 밸류체인 기업 간, 기업 내 이종 솔루션들을 연계하여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

이를 통해 이종 솔루션 간 산업데이터 호환성 확보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핵심 산업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중심의 표준화·실증·활용 생태계 구축 등 성과확산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표준화·실증 추진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올해 추진되는 2개 분야와 향후 신규 과제들에서 확보되는 분야의 데이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해외의 표준-실증연계 사례 분석, 범부처 데이터 사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표준·실증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 검색툴을 개발하고 산업데이터 과제관리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과제별 사업 산출물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데이터 교환·융합 표준개발 및 실증체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적기 부응하는 자발적·지속가능한 산업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
-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중국, 2021년 1월 1일부터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2021년 1월 1일,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가 시행됩니다. 동 조례가 시행되면 종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본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총 6장, 8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의 분류와 관리, 신원료의 정의와 관리, 화장품 허가과 등록, 화장품 효능 광고, 화장품 라벨 표시, 치약 및 비누 관리, 시행 일자과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의 정의 :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
- 화장품의 분류와 관리
 - 특수화장품(허가관리): 염모, 펴, 기미제거와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과 새로운 기능을 광고한 화장품으로 기존 9개에서 5개로 축소.
 - 일반화장품(등록관리): 특수화장품 이외의 화장품
- 신원료의 정의와 관리

-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원료로 특수화장품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원료는 NMPA에 등록(신고)하고 허가 취득 (이외에는 등록)
- 신규 등록 및 허가받은 원료는 3년의 관찰기간 동안 NMPA에 안전상황을 연간보고하며, 3년 관찰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신원료는 NMPA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

○ 생산 및 품질관리

- 화장품 생산 면허는 5년간 유효
- 화장품 생산기업은 NMPA에서 제정한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원료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설비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은 제품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보존 기간은 최소 2년

○ 화장품 라벨 표시

- 최종 판매되는 개별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 의무화
- 라벨 의무 표시 사항
 - 1) 제품명
 - 2) 특수화장품인증번호/일반화장품등록번호
 - 3) 인증/등록신청인, 생산기업명과 주소
 - 4) 화장품생산허가증번호
 - 5) 국가표준번호
 - 6) 전체 성분
 - 7) 순함량
 - 8) 유통기한, 사용법, 주의사항/경고표시
 - 9) 기타법률/법규 및 국가강제성표준에서 요구한 내용
- 표시 금지 사항 :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내용,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며, 본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 제모, 가슴미용, 바디슬리밍, 체취 화장품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내에 계속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9/content_5522593.htm

○c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2020년 12월 22일 환경부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고시 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GHS 7차 개정에 맞게 조정된 유해제품규정 사항

- GHS 용어 정의 변경
- 인화성 가스-카테고리 1(극인화성 가스)을 하위 카테고리 1A 및 1B로 세분화하고 7장의 하위 파트 19를 폐지
- 새로운 용어 정의 추가 : 화학적 불안정 가스, 자연발화 가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발암성,
- 인화성 에어로졸 위험 등급명을 에어로졸로 변경하고 비인화성 에어로졸을 분류한 신규 카테고리 3을 채택
- 인화성 에어로졸 용어 정의 삭제
- 산화성 고체에 대한 신규 테스트 절차가 추가된 것을 반영하고자 분류 기준을 확대
- 피부 부식 분류 기준 개정
- 유해제품규정 별표1의9항 개정 및 별표1의14(f) 폐지

○ 명시 또는 변경한 특정 조항

- 위험 등급에 분류된 제품, 혼합물, 물질은 가장 심각한 범주로 분류
- 동물 연구에서 물질의 작동 방식이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물 연구를 제품 분류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 소유권 이전 없이 양도 받는 실험실 샘플의 경우 라벨 부착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
- 기밀 사업 정보를 요구한 사업주에게 유해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예외 조건을 명시
- 인화성 가스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기반으로 분류된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명시
- 유기과산화물, 급성 독성 및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일 노출-카테고리 3의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혼합물에 대한 분류 절차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

○ 본 의도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

- 유해제품규정 4장(SDS)을 개정하여 위험문구와 예방문구의 조합을 허용하는 3장 조항이 SDS에도 적용
- 유해제품규정 4장(SDS)을 개정하여 축소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할 수 있는 3장의 면제 조항이 SDS에도 적용
- 유해 성분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농도 범위보다 더 좁은 농도 범위를 SDS에 사용가능
- 자가발열물질, 유기과산화물, 가연성분진-카테고리1에 대한 분류 기준 개정
- 판매 또는 수입 시 급성독성-흡입, 수인독성물질 분류되거나 되지 않는 물질에 관한 조항 개정
- 생식독성-카테고리 2에 대한 분류 기준 개정
- 유해제품규정 별표1의2항과 별표1의3항 개정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1년 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 규정은 캐나다 공식 관보(Gazette) 공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채택될 예정이며 발효 후 2년 간의 이행 준비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gazette.gc.ca/rp-pr/p1/2020/2020-12-19/html/reg4-eng.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영국 전기자전거 시장동향

- 영국 전기자전거 판매 2020년 코로나19 록다운 중 118% 증가 -
- 전기자전거 수입도 꾸준한 증가세로,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이 50% 차지 -

상품명 및 HS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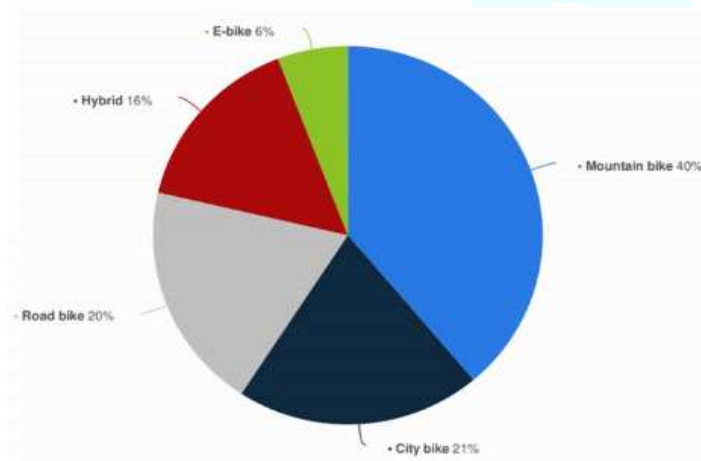
전기자전거 (HS 코드: 871160)

최근 시장 동향 및 이슈

영국 자전거협회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자전거 시장 규모는 22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전체 자전거 시장의 20%인 4억 4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2020년 3월 코로나19발 1차 록다운 이후 자전거를 타려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판매도 2020년 4~9월 사이 60% 증가했고, 전기자전거의 경우 118%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순~6월 중순 자전거를 탄 인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3년간 영국의 전기자전거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전기자전거 비중은 6%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타입의 자전거보다 낮은 비중이지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intel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인구의 14%가 1년 이내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의사를 밝혔으며, 45%는 전기자전거 테스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인구의 35%도 전기자전거를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자전거 보유 타입별 비중 (2019년 기준)



자료: Mintel

영국 전기자전거 판매 동향

(단위: 대/%)

연도	2017	2018	2019
판매대수(추정치)	67,500	73,000	102,000
증감률	-	8	40

자료: Mintel

영국 전기자전거 판매 동향

(단위: 대/%)

연도	2017	2018	2019
판매대수(추정치)	67,500	73,000	102,000
증감률	-	8	40

자료: Mintel

영국 자전거협회는 영국 내 전기자전거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에 소비자의 전기자전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전기자전거 한 대당 최소 25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향후 12개월간 전기자전거 판매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협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화물 전기자전거(화물 운반 등 상업용 및 개인/가족 용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교체 보조금을 전기자전거로도 확대
- 자전거와 관련된 전 제품에 부가세 0% 적용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최근들어 화물자전거(Cargo bike)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유럽의 화물자전거(전기 및 일반 모두포함) 판매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바 있다. 화물자전거는 소형 상용차의 대안 및 아이가 있는 가정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매년 200만대의 화물자전거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반기 영국 교통부는 전기화물자전거(eCargo bike) 확산을 위해 58개의 지자체의 전기화물자전거에 대한 16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승인한 바 있다.

영국내유통전기화물자전거예시

		
상업용 전기 화물자전거	상업용 전기 화물자전거	가정용 전기 화물자전거
· 맨체스터 지역의 DHL 전기 화물자전거	· 런던 지역의 Coop(슈퍼마켓) 배달 전기 화물자전거	· 브랜드: Babboe · 가격: £3,000~4,900 · 1~3명의 아이 탑승 가능

자료: 영국현지언론

수입 동향

영국의 2020년 1~10월 전기자전거 수입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90.9% 증가한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수입점유율 23.9%), 대만(22.6%), 네덜란드(22.6%), 헝가리(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로 높은 편이며, 상위 10개 수입대상국은 대부분 주변 유럽국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주변 서유럽 국가보다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다.

영국 전기자전거(HS: 871160) 주요수입대상국및통계
(단위: 천달러/%)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10월까지)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총	68,955	100	131,859	100	204,103	100
1	중국	18,014	26.1	29,921	22.7	48,770	23.9
2	대만	11,129	16.1	33,132	25.1	46,150	22.6
3	네덜란드	3,900	5.7	18,243	13.8	22,478	11.0
4	헝가리	6,024	8.7	7,804	5.9	16,269	8.0
5	체코	5,506	8.0	5,671	4.3	14,602	7.1
6	독일	8,012	11.6	10,349	7.8	12,711	6.2
7	태국	6,533	9.5	6,913	5.2	10,342	5.0
8	벨기에	4,474	6.5	5,383	4.1	6,806	3.3
9	스페인	905	1.3	2,232	1.7	6,621	3.2
10	덴마크	450	0.0	1,220	0.9	5,386	2.6
24	한국	N/A	N/A	N/A	N/A	134	0.07

자료: GTA

對한수출입동향

지난 3년간 영국은 한국과의 전기자전거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020년 1~10월 영국의 對한 전기자전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495% 증가한 17만 7,40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영국의 對한 수입은 지난 3년간 기록이 없다가 2020년 1~10월 13만 4,020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의 對한 전기자전거(HS: 871160) 수출입통계
(단위: 천달러/%)

년도	對한 수입		對한 수출	
	수입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7	N/A	N/A	83	N/A
2018	N/A	N/A	95	14.8
2019	N/A	N/A	20	-78.8
2020 (10월까지)	134	-	177	-

자료: GTA

인기 브랜드 및 경쟁동향

전기자전거도 일반자전거처럼 산악자전거, 로드자전거, 시티자전거, 접이식자전거, 화물자전거 등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영국에서의 유통 가격대는 400파운드대에서 1만 파운드 이상이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1000파운드 이하의 저가 자전거 브랜드는 Halford사가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Carrera와 Apollo 등이 있다. 영국 생산, 영국 브랜드인 Brompton, Raleigh, Volt 등은 보급형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며 가격대는 1000~3000 파운드 내외이다. 500파운드 이하의 저렴한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 가능하다. 2019년 기준 영국의 전기자전거 평균 구매가는 1000~1500파운드로 나타났다.

영국 내 유통 인기 저가 전기자전거

		
Fiido D2	Assist Hybrid	BTWIN Elops 500 E
₩ 489	₩ 479	₩ 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이식 자전거 · 마그네슘 알로이 프레임 · 최고속력 25km/h · 250W 모터, 36V 7.8Ah 배터리 · 중국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 · 최고속력 15.5m/h · 250W 모터, 4.8Ah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틸프레임 자전거 · 250W 모터, 24V 8.8Ah 배터리 · Decathlon 자체 브랜드

영국 내 유통 인기 보급형 전기자전거(1000~3000파운드)

		
Volt Pulse Hybrid E-bike	Raleigh Motus Crossbar	Brompton M6L
₩ 1,749	₩ 1,800	₩ 2,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로드/오프로드 바이크 · 최고속력 15.5m/h · 250W 모터, 36V 400Wh 배터리 · 영국 브랜드, 영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 · 36V 300Wh 배터리 · 영국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이식 자전거 · 300W 모터, 36V 8.55Ah 배터리 · 영국 브랜드, 영국산

영국 내 유통 인기 고가 전기자전거(3000파운드 이상)

		
Tern Vektron S10	Lapierre e Zesty Fauza	Specialized Turbo Levo SL
₩ 3,600	₩ 5,399	₩ 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이식 자전거 · 10단 기어 · 최고속력 20m/h · 250W 모터, 400Wh 배터리 · 대만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운틴, 트레일 바이크 · 초경량 카본파이버 프레임 · 최고속력 35m/h · 250W 모터, 36V 250Wh 배터리 · 프랑스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운틴, 트레일 바이크 · 초경량 카본파이버 프레임 · 최고속력 20m/h · 48V 320Wh 배터리 · 미국 브랜드


영국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자전거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19세기 말에는 Raleigh 기업이 자전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Raleigh는 한때 연간 100만대의 자전거를 생산하며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업체로 성장했고 버밍엄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자전거 제조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제조업의 쇠퇴로 자전거 산업도 영향을 받았으며 대부분 해외생산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기준 영국 내 자전거 및 자전거 용품 제조업체는 50개 내외이다. 전기자전거 생산 관련, Raleigh나 Brompton처럼 기존 자전거 기업이 전기자전거 생산을 시작한 경우도 있으며, Volt 및 Gocycle처럼 전기자전거만 생산하는 기업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영국산전기자전거기업정보

Raleigh				
	웹사이트	https://www.raleigh.co.uk/		
	특징	- 1887년 노팅엄 설립, 1990년대 전기자전거 생산 시작 - 모든 자전거 모델을 해외에서 생산		
	주요 모델	Motus, Centros, Array, Felix 등	가격대	£1,350~2,850

Brompton				
	웹사이트	https://www.brompton.com/		
	특징	- 1975년 런던 설립, 매년 4만5천대 자전거 생산 - 모든 자전거 모델을 영국에서 생산		
	주요 모델	Electric	가격대	£2,850~3,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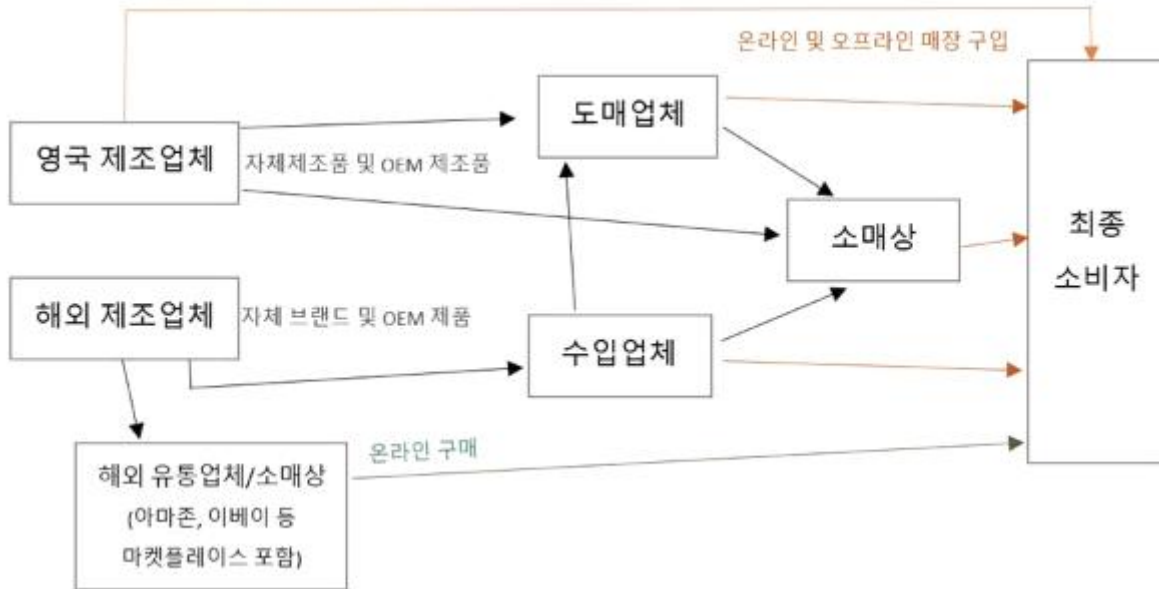
Volt				
	웹사이트	https://voltbikes.co.uk/		
	특징	- 2010년 버킹엄셔 설립, 전기자전거만 생산 - 모든 자전거 모델을 영국에서 생산		
	주요 모델	Pulse, Metro, Burlington, Alpine 등	가격대	£1,599~2,599

Gocycle				
	웹사이트	https://gocycle.com/		
	특징	- 2009년 체싱턴 설립, 전기자전거만 생산 - 세계 최초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전거 생산		
	주요 모델	S, GX, GXi, G3C	가격대	£2,400~4,449

유통구조

영국에서 전기자전거는 일반 소비재와 비슷한 경로로 유통된다. 대부분의 전기자전거 온라인 상점들은 소비자가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매장에서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도록하며, 고가의 자전거에 대해 무이자 할부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의전기자전거유통구조



자료: 코트라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영국의전기자전거유통·공급업체

업체명	취급 브랜드	홈페이지
Halfords	Pendleton, Carrera, Apollo, Devron 등	https://www.halfords.com/
UK Electric Bike Company	Lapierre, Haibike, Tern, Cube 등	https://www.e-bikeshop.co.uk/
Balfe's	Trek, Brompton, Specialized, Giant 등	https://www.balfesbikes.co.uk/
Evans Cycles	Raleigh, Trek, Specialized, Brompton 등	https://www.evanscycles.com/
E-bikes Direct	Aurelia, Haibike, Lapierre, Raleigh 등	https://www.e-bikesdirect.co.uk/
Fully Charged	Gocycle, Cube, Tern 등	https://www.fullycharged.com/
Decathlon	Btwin, Rockrider, Elops, Riverside 등	https://www.decathlon.co.uk/

전기자전거(HS: 871160) 수출시 유의사항


한국산 전기자전거는 한-영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무역협정 등의 혜택이 없는 국가에 대한 기본 세율은 6%이며, 부가가치세는 20%이다. 참고로 중국 공장에서 일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유의해야 한다. 영국은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해 반덤핑 10.3~70.1%를, 상계관세 3.9~17.2%를 부과한다.

전기자전거에 적용되는 제품 규격은 기존 EU 회원국이었을 때 준수해야 했던 통일규격(harmonised standards) EN15194:2017과 같으며, 영국에서는 해당 규격의 명칭이 기존 명칭 앞에 BS가 더해진 BS EN15194:2017로 바뀌었다.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자전거에 필수였던 CE 인증은 UKCA 인증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영국은 UKCA 마킹 부착까지의 이행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해 해당 날짜까지는 CE 마킹만

있는 제품도 영국 내 유통이 가능하다. 2022년1월1일부터는UKCA 마킹 부착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UKCA 마킹을 미리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UKCA 마킹적용타임라인

로고	날짜	내용
	2021.1.1 ~ 2021.12.31	- 기존 CE 마킹 및 UKCA 마킹 모두 사용 가능 - 기존 CE 마킹만으로도 영국 내 유통 가능
	2022.1.1 ~ 2022.12.31	- UKCA 마킹만 인정, CE 마킹은 인정 안됨 - UKCA 마킹은 라벨 형태나 추가적인 서류 형태로 가능
	2023.1.1~	- 대부분의 제품 자체에 UKCA 마킹이 각인되어야 함 - 라벨 형태나 추가적인 서류 형태 인정 안됨

자료: 영국정부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자전거타기가 인기를 얻으며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영국 자전거 유통 업체 H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의 자전거 인프라는 주변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영국 정부가 자전거 도로 및 전기자전거 보조금 등을 통해 자전거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시장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상대적으로 근력이 덜 필요한 전기자전거 사용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전기자전거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한국산도 고품질, 고성능 등을 내세우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고가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자전거 품목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영국에서 자전거 한 대 당 평균 소비가가 1000~1500파운드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가격대나 이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자전거로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GTA, Statista, Bike Europe, 현지언론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